



"아이를 기르려면 무당 반에 어사 반이 되어야 한다"

뜻: 아이를 키울 때는 잘한 일은 따뜻하게 칭찬해주고 잘못된 일은 엄격하게 가르치는,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양육 · 균형 · 이중성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아	이	를	기	르	려	면	무	당	반	에
어	사	반	이	되	어	야	한	다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아	이	를	기	르	려	면	무	당	반	에
어	사	반	이	되	어	야	한	다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ㅇㅇㄹ][ㄱㄹㄹㅁ][ㅁㅅ][ㅂㅇ][ㅇㅅ][ㅂㅇ][ㄷㅇㅇ][ㅎㄷ]

웹에서 보기

